

세계적 양산의 환상적인 골프장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탄력적인 그린피 시스템 운영

- 인터넷회원 예약시
- 평일 최대 3만원, 주말 최대 5만원까지 할인가능
- 예약 : www.hpdynasty.co.kr 061)320-7700, 7714



■ 오늘 동아시아축구 남북대결 <밤 9시45분>

■ 북한팀 전력은?

FIFA 랭킹 120위

최강 4·25팀 소속 8명

허정무호 “北 정대세 봉쇄하라”

북한 축구대표팀은 8강 기적을 이룬 1966년 잉글랜드 대회 이후 44년 만에 월드컵 본선 진출을 노리고 팀을 재건하고 있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은 120위로 41위 한국에 객관적 전력에서는 밀린다. 남북 간 공식 A매치에서도 1978년 12월 방콕 아시안게임 결승에서 처음 만나 0-0으로 비긴 뒤 2005년 8월4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제2회 동아시아선수권대회 2차전까지 총 9차례 맞붙어 1승3무5패로 한국에 뒤졌다. 북한의 유일한 승리는 1990년 10월11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통일축구(2-1) 때다. 북한은 최강 클럽 4·25팀 소속 선수들이 주축이고, 여기에 해외파가 가세했다. 김정훈 대표팀 감독이 맡고 있는 북한의 최강 클럽 4·25팀 선수들은 8명이야 포함됐다. 이들 중 좌우 측면공격을 이끄는 문민국과 박남철, 그리고 수비수 남성철, 리광천, 박철진, 한성철 등 6명이 일본과 1차전(1-1 무승부)에 선발 출전했고, 김금일이 교체 출전했다. 김 감독은 일본 J-리그에서 뛰는 공격수 정대세(가와사키)와 미드필더 양용기(2부리그 센다이), 그리고 K-리그에서 활약하는 안영학(수원 삼성)까지 불러들였다.

포백 가동... 조원희 “충분히 막을 수 있다”

월드컵 전초전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

비수를 세 명이나 둘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북한이 일본과 1차전에서 보여줬듯 수비벽을 두텁게 쌓고 역습에 치중할 것으로 예상돼 한국으로서는 공격 숫자를 늘릴 필요가 있다. 공격적 성향의 박원재(포항)와 이종민(울산) 등 좌·우 풀백 자원들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포백이 제격이다.

◇허정무 올렸던 정대세 봉쇄령=일본 아이치현 나고야에서 태어났지만 본적은 경북 의성인 재일교포 3세 정대세, 일본 J-리그에서 뛰고 있는 그는 북한 공격의 핵심 선수다.

허정무 감독은 정대세 때문에 이미 쓴 맛을 본 적이

있다.

허 감독이 K-리그 전남 드래곤즈를 이끌던 지난해 4월25일, 전남은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4차전 원정경기에서 정대세에게 두 골을 내주며 0-3 완패를 당했다.

정대세는 지난해 6월 마카오에서 열린 동아시아대회 예선에서 처음으로 북한 대표로 출전해 3경기에서 8골을 넣어 득점상을 받을 만큼 뛰어난 공격수다.

오른쪽 풀백과 중앙 수비형 미드필더로 뛰는 조원희(수원)는 “우리 수비가 충분히 막을 수 있다”며 정대세 봉쇄에 자신감을 보였다. 정대세의 발을 묶어야

승리를 이야기할 수 있다.

◇월드컵 전초전=지난해 11월26일 남아공 더반 인터내셔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남아공 월드컵 대륙별 예선 조 추첨식, 운명처럼 남북이 한 조(3조)에 속했다.

이로써 남북은 1993년 10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1994 미국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이후 15년 만에 월드컵 예선 무대에서 대결하게 됐다.

국가, 국가 문제 등으로 대회 준비에 난항을 겪고 있지만 남북은 3월25일 평양에서 월드컵 3차 예선 2차전을 갖는다. 6월22일에는 한국에서 3차 예선 최종전을 치러야 한다. 이번 대회가 전초전인 셈이다.

한국은 월드컵 예선 조추첨 뒤 북한의 전력 분석 및 정보 수집을 위해 지난해 12월 태국에서 열린 킹스컵 국제대회, 6일 요르단 원정경기 등에 코칭스태프를 파견하며 남북대결을 준비해 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연합뉴스

남북 축구가 20일 중국 충칭 올림픽스포츠센터에서 열린 2008 동아시아축구선수권대회 2차전에서 격돌한다.

남북은 2005년 대회에서 만나 뒤 2년6개월 만에 다시 공식 A매치 무대 위에 마주 선다.

월드컵 동반 본선 진출을 노리는 남북은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 예선에서 한 조에 속해 이번 대결은 ‘월드컵 전초전’의 의미까지 담고 있다.

한국-북한전의 관전포인트를 살펴본다.

◇허정무호 이번엔 포백(4-back)=중국과 1차전(3-2 승)에서 스티백으로 맞섰던 한국은 이번엔 포백 수비라인을 가동한다. 북한이 정대세(가와사키)를 최전방 깊숙이 원톱으로 배치하기 때문에 굳이 중앙수



국가대표 이승훈-이호석 선두 다름

19일 강원 강릉실내빙상장에서 열린 제89회 동계체전 쇼트트랙 경기 남대부 1500m경기에서 국가대표 이승훈(왼쪽·서울)과 이호석(경기)이 선두 다름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 동계체전 첫 날

전남 조인희 3관왕 달성

조인희(장흥 군청·사진)가 제89회 동계체전 첫 날 3관왕에 오르며 전남이 상대적으로 출발했다. 그러나 광주는 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조인희는 19일 강원도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열린 바이애슬론 여자일반 스프린트 7.5km에서 23분45초 4로 팀 동료 문지희(진도군청)를 제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어 지난 17,18일 사정경기로 열린 바이애슬론 계주와 개인경기에 이어 3관왕을 달성했다.



최경주 세계랭킹 8위

지난 주보다 1계단 올라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노던트러스트 오픈에서 7위에 오른 최경주(38·나이카골프)가 세계랭킹 8위로 지난 주에 비해 한 계단 올라섰다.

19일 발표된 세계 주간 골프랭킹에 따르면 최경주는 랭킹 포인트 5.73점으로 7위 집류릭(미국)에 0.02점 밀려 8위에 이름을 올렸다.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변함없이 483주 연속 1위를 지켰으며 노던트러스트오픈 우승자 필 미켈슨(미국)도 2위를 고수했다.

여자랭킹에서는 미국여자프로골프 투어 시즌 개막전인 SBS오픈 우승으로 부활을 예고한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이 로레나 오초아(멕시코)에 이어 2위가 돼 두 계단 올라섰다.

지난 해 11월19일 랭킹에서 3위로 내려선 데 이어 12월31일 순위에서는 4위까지 내려앉았던 소렌스탐은 3개월만에 2위 자리를 탈환했다.

신지에(20·하이마트)가 7위를 유지해 한국 선수 가운데 가장 순위가 높았고 김미현(31·KTF) 9위, 박세리(31)의 10위 자리도 변함 없었다.

태극낭자들 또 하와이 정벌 나선다

LPGA 필즈 오픈 22일 개막

박세리·위성미 가세 총 36명

신지에·오초아·카리 웹 불참



박세리

단은 큰 변화가 없다. 시즌 개막전이었던 SBS오픈에서 우승해 통산 70승이라는 금자탑으로 재기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소렌스탐과 작년에 5승을 거둔 수안 페테르센(노르웨이), 크리스티 커, 폴라 크리머, 모건 프래셀, 나탈리 갈비스(이상 미국)도 출사표를 냈다.

개막전을 거른 새로운 ‘여왕’ 로레나 오초아(멕시코)와 세계랭킹 3위 카리 웹(호주)은 이번 대회에 빠진다.

필즈오픈 관전 포인트 가운데 으뜸은



위성미

LPGA 투어에서 가장 많은 선수를 거느린 ‘코리안 파워’가 시즌 첫 우승 여부이다.

제1회 대회 때 연장전을 벌여 우승과 준우승을 나눠가졌던 이미나(27·KTF)와 이선화(22·CJ)가 선봉에 나설 전망이다.

작년에 1타가 모자라 어렵게 준우승에 머물렀던 장타자 이지영(23·하이마트)도 유력한 후보로 꼽힌다.

생애 첫 우승이 다급한 안젤라 박(20·LG전자), 민나온(20), 김민경(20·하나금

용), 제인 박(21) 등 ‘영건’들도 눈여겨 봐야 한다.

현지 언론은 하와이가 낯은 스타 미셀 위의 북극전이라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낮밤없이 책과 씨름해야 나체를 면한다는 ‘서부의 하버드’ 스탠퍼드대학 신입생인 위성미가 학업과 프로 골프 선수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적 시각도 여전히 있다.

골프·컨도·호텔권거래 전문기업

**특PELL리 회원권**

골프 회원권	3,500	콘도 회원권	1,700
남관주	4,400	골드	1,900
클럽900	6,400	도	2,100

상담 문의 (062)351-0095

크로스컨트리 15km 계주 금

내일 프리 10km 4관왕 도전

광주는 메달 사냥 실패

특히 조인희는 20일 크로스컨트리 15km계주, 21일 크로스컨트리 프리10km가 남아 있어 대회 4관왕도 가능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써 조인희는 동계체전 여자일반부 전종목 석권의 금자탑을 쌓으며 국가대표로서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문지희는 지난 18일 바이애슬론 여자일반부 개인 15km 은메달에 이어 이날도 아쉽게 팀 동료 조인희에게 금을 넘겨줘 은메달만 2개를 획득했다.

이외에 전남은 스키 크로스컨트리 여자초등 클래식에서 윤민지(화순초)가 4위를 차지했으며 부산 문화실내빙상장에서 열린 컬링경기에서는 남교, 남일, 여교부가 모두 패해 아쉬움을 남겼다.

광주는 이날 오행화(전남대2)가 강원도 스노파크경기장에서 열린 스키 남자대학부 클래식 15km에서 10위에 머무는 등 대부분 종목에서 등위권에서 벗어나 부진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